



경마문화신문



축산경제신문

공동기획

9월 9일
일요일
제971호 부록

마필산업 경쟁력 약화 그 해결책은 없는가?

바다이야기

- “사통법” 시행 : 규제법안 경쟁적 발의로 ‘사면초가’ ... 2-3면
- 경마위기 타개 위해 경마관련단체 뭉쳤다!! ... 3면
- 위기 직면한 마필 생산 산업의 현황과 과제 ... 4-5면
- 세계 각국의 경마 “Sports of Kings, King of Sports” ... 6-7면
- [마사회 기고] 경마를 ‘돈’으로 환산하면? ... 9-10면

우리는 왜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엇 때문에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는 경마시행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을 요약하면 마사진흥(馬事振興)과 축산발전(畜産發展)에 있다. 세계경마의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한국경마는 이 목적과 동떨어져 사회나 국민으로부터 ‘도박의 황제’라는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있다.

이제부터라도 법의 목적에 맞는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첫째는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경마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주마가 없는 경마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마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주마의 생산-육성-경주투입-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사이클을 통해서 발전해간다. 즉 모든 과정이 경주마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진경마국들은 모든 정책의 초점을 질 좋은 경주마를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서브레드라는 단일 혈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마산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브레드라는 전세계 공통의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면서도 질 좋은 경주마를 생산하고 육성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저 판만 돌리면 된다는 식의 후진적인 제도와 정책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사감위법에 경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마는 반드시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경마산업이 여타의 사행산업 즉 복권이며 카지노와는 어떻게 다르고 경륜 경정 스포츠포토와는 무엇이 다른지 단 한번쯤이라도 제대로 생각해보았다면 경마를 싸잡아 사감위법에 포함시키지 못했을 것이

다. 아주 초보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마산업을 카지노나 복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세계적인 비웃음거리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흔히 도박이나 사행행위는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카지노나 복권은 도박이 확실하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마와 비슷하다는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포토도 따지고 보면 경마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100여가지가 넘는 우승요인을 점검하여 답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륜이며 경정 스포츠포토 등에 사용

되는 기계나 기구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선수의 역할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마산업을 이들 사행산업과 똑같이 취급하는 국회의원들의 무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무식한 정치인들에게 국가 살림을 맡기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애석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감위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적 죄인이 되고 말았다. 죄를 지은 국회의원들은 마필생산농가는 물론이요 축산농민 더 나아가 전체 농민들에게 지은 죄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사감위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전체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경마문화신문과 축산경제신문은 이같은 마필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동기획으로 특집호를 발행한다. 마필산업의 공익성과 사행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양사 취재진이 마필산업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 대해 심층 취재하여 보도한다. 모쪼록 양 신문의 심혈을 기울인 공동기획이 마필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마문화 발행인 kmyoung@krj.co.kr

축산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마필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특집호를 발행하며

‘사통법’ 시행 · 규제법안 경쟁적 발의로 ‘사면초가’

■ 한국경마산업 현황과 과제

한국경마산업계 전반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경마산업계 관계자들의 대정부 국회, 건의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마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시행으로 정책 차원의 규제 대상 사행산업에 포함된 데다 보편성이나 산업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과는 상관없이 제도권내 사행산업들인 경륜, 경정, 카지노, 로또, 토토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감독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마 위상 변화에 대해 경마산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으로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경마가 정부의 정책규제 대상 사행산업에 포함된 것은 경마시행체인 KRA의 장외발매소 추가 설치 등 경마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려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현실화한 것이어서 경마산업계로서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경마산업계 전반이 위축되는 현상을 몰고 온 ‘사통법’



- 규제 일변도 정책방향 설정만 위축 불가피

- 후발 경쟁산업들 급 신장 ‘독주시대’ 끝나

- 단순한 여타 LB산업과 차별성 무시돼 우려

시행과 ‘사통위’ 발족은 한국경마산업의 성장과 미래에 불확실성을 더해주며 특히 경마용 말과 승마용 말을 생산, 공급하는 양마산업계에 민감하게 파급돼 불안감을 팽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0년 역사 기록을 바라보게 된 시점에서 성장과 발전이 억제되고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장애물 대두로 곤경에 처한 형국인 한국경마산업은 서울경마공원 개장과 개인마주제도 도입 이후 괄목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경마산업계가 주목했을 만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었다.

수입마 의존도가 높았던 경주마 자원 사정과 거의 유일한 경마장(서울경마공원) 운영을 통해 연간 1100여개 안팎의 경주 시행으로 한때 7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했던 한국경마산업의 성장 추이는 세계 경마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놀라운 성장 신화’ ‘KRA의 성공 신화’ 등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처럼 주목을 받고 호평을 받았던 성장과 발전의 바탕과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땅한 성인오락게임이나 놀이문화가 부재했던 시절, 촉각을 세우고 신경을 써야 할 경쟁사업자가 없었던 시장 여건에서 마권발매시스템의 전산화와 장외발매소 확충, 첨단 마권발매기 개발이 매출 신장과 팽창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증가 추이를 지속한 매출 규모와 임직원 등 외형적인 측면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시장의 수요에 고무돼 ‘지방경마시대’ 창출이 제기됐고 지방경마장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지난 2005년 부산경남경마공원 준공과 개장으로 지방경마시대의 서막을 열었지만 시기적으로 국가 및 가정경제 상황 악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악재

가 겹쳐 있던 시점이어서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과 지방경마 본격 시행 이후에도 시장 여건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 경마산업계 저변에서 증폭된 우려는 한층 심각해졌고 위기론이 절박하게 제기됐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바다이야기’ 과문을 비롯해 불법 사행게임 성행과 사업장 난립 등 악재들이 잇달아 돌출, 기특이나 곱지 않았던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 시선은 한층 격앙되고 싸늘해진 가운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단체 등이 규제 법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발의하고 나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경마산업계 내부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거세진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대상 지역 주민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 목소리와 실행행사는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던 원주·순천플라자를 비롯해 개설이 추진 중이던 모든 장외발매소마저 설치를 철회케 하는 사태를 낳았다.

경마사업 확장이 이처럼 난관에 봉착하고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현실화한 반면에 ‘로또돌풍’을 일으켰던 온라인복권 로또에 이어 등장했던 체육진흥투표권 토토는 매출 감소로 체육진흥기능이 약화된 경륜사업과 경정사업을 추월, 지난해 체육진흥관련 기금 등으로 2319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체육진흥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선두주자로 급부상, 앞으로 추이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KRA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토는 발매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법에 힘입어 토토는 작년에 장외판매점을 무려 6700여 개소로 늘리고 경기발행 회차도 지난 2002년의 90회에 비해 10배 이상 확대된 1000회로 늘리는 공격

적인 운영으로 출범 5년 만에 연간 매출 1조 원대를 돌파하는 등 성장가도를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 추세에 따라 제도권내 공식성 사행사업 중 앞으로 성장과 경쟁력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 토토는 시행원리 측면에서 우승결과를 맞힌 결과에 따라 적중배당금을 받는 패리뮤추얼 방식의 경마 등과 동일하다.

그런데 경마와는 달리 장외판매점 설치에 아무런 법적 기준이나 제약이 없어 전국에 거침없이 판매점을 개설하고 확충할 수 있다. 경마와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는 관련 법령이 학교 앞이나 주택가 주변에는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로또나 토토의 장외판매점은 관련법 미비로 심지어 초등학교 앞 이든 주택가 등 설치 장소에 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무제한 설치가 가능하다.

또 경마와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 설치 근거는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폐지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설치 근거나 조항이 전무한 로또나 토토 판매점은 사행성 확산 우려 대상에서 포함되거나 규제 요구는 물론 폐지 압력에 직면한 사례가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마, 경륜, 경정사업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하고 사행성 확산을 문제 삼는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 관계자 등의 태도에 경마산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와 함께 불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경마산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제도권내 사행성게임 인터넷베팅과 관련, 감사원이 경마, 경륜, 경정의 인터넷베팅 시행 근거는 문제를 삼고 시정을 조치한 반면에 토토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거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국회 등의

경마위기 타개를 위해 경마관련단체가 한 뜻으로 뭉쳤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서울경마공원 방문해 경마관련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서울마주협 남승현 회장 및 오경의 前서울마주협회장 초청으로 한국경마의 현실을 듣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시행과 국회에 상정된 마사 회법개정 법률안 등 급박한 경마산업의 걸림돌을 타개하기 위한 경마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정치권에 한국경마의 현실을 알리려는 큰 걸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서울경마공원을 방문해, 김도훈 한국마사회부회장 등 마사회 핵심 간부들을 만나 경마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마주협회(회장 남승현)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마관련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경마의 위기상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경마관계자들과 함께 한 권오을 위원장은 경마세계 현실과 경마산업의 기간산업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2일(일) 오후 3시경 오경의 前서울마주협회장과 남승현 신임 서울마주협회장의 초청으로 한국마사회를 방문한 권오을 국회 농해수산위원장은 외근중인 이우재 마사회장을 대신하여 김도훈 부회장으로부터 현재 당면한 마필산업의 현황을 보고받는데, 이어 오후 4시경 서울마주협회장실에서 경마관련단체장들을 만나 한국경마 및 마필산업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간스포츠배 경마대회 시상식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도훈 한국마사회부회장, 남승현 서울마주협회장, 오경의 前서울마주협회장, 지대섭 마주, 김순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김한영 내륙말생산자협회장, 박흥진 조교사협회장, 박봉철 관리사노조위원장, 김기선 기수협회 사무국장, 김문영 본지 발행인 등이 참석했다.

경마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브리핑한 김문영 본지 발행인은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경마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카지노와 복권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등과 함께 총량적으로 규제를 당한다면 한국경마산업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마산업은 국가간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글로벌산업이라고 전제하며 FTA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 경마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영 내륙생산자협회장은 경마장이 없어진다고 도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김순건 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현재 생산능기는 여력한도까지 투자를 하는 실정이지만 경마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환급률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대섭 마주는 단일경마장으로 세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질적인 면에선 이조시대라고 표현하면서 국회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개선해준다면 한국경마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위원장은 경마관련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하면서 “경마장에 몇 번 외박지만 구체적인 소개를 받기는 처음”이라고 밝히고, 환급률과 경마시행 등에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경마관련단체들은 권오을 국회 농해수산위원장의 서울경마공원 방문을 계기로 정치권이 한국경마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으며, 경마관련단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된 마필산업 발전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경마문화 기획특집팀〉

관계자들이 공평한 시각과 잣대를 가지고 제도권내 사행산업을 바라보고 규제와 감독을 하려드는지 의문스럽다”고 털어놨다.

공익성 사행산업들에 대한 무차별 규제와 불공평한 규제 조집이 알려지자 축산단체를 비롯한 농업인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체육진흥은 중시하고 농업, 축산, 농촌진흥은 경시하고 있는 발상과 사고에서 비롯된 태도가 아닌지 주시 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한국경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농촌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축산에 젖줄 같은 축산발전기금 출연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마사업 확대를 금지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전화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의 마권발매 및 구매 금지를 비롯해 경마사업을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수 등으로 규제, 제도권내 모든 사행산업에 총량제를 도입,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정부의 사행산업 관련 정책방향 설정과 규제 강도에 따라서는 특히 경마사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마 인터넷베팅은 경주마와 기수능력, 상대마의 전적 등 수십 가지 자료를 토대로 분석, 추리해 참여하는 것이 전제되는 만큼 일반인의 참여는 어려운 실정인데다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분산시켜 장외발매소 관련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는 실질



적인 방안으로 실효성이 검증된 바 있으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 개발과 요구로 인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위축과 중단이 불가피해질 상황이다.

경마 규제법률 안의 경쟁적인 발의 추진 못지않게 문제 제기 되고 있는 것은 경마의 보편성과 산업성,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다른 사행산업과 차이가 뚜렷한데도 단순한 사행산업으로 간주되고 동일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마는 복합적인 산업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사행성게임 또는 갬블로 치부하는 것은 오관이다. 경주용 말 생산→육성→경마시행→우수한 말 능력 검증 및 발굴→

생산으로 환류 사이클의 순환으로 이뤄지는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한 레저스포츠산업이기도 하다.

마사의 진흥과 축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경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들여다보면 타 사행산업과는 달리 농축산업과 농촌경제, 농어촌 복지, 교육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쉽게 엿볼 수 있다.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은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단순한 편에 속하는데 반해 경마는 여러 분야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 성격이 뚜렷하다. 연관 산업을 세분화하면 양마에서 육성, 수의, 동물약품, 의료, 장제, 사료, 농기계, 장구, 운송, 보험, 승마, 레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관련 산업 분야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보니 고용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현재 경마 및 연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전문 인력을 포함해 1만5000여 명을 헤아리고 있다.

경마는 여전히 레저세, 교육세, 농특세 등 국세와 지방세로 연간 1조원 이상 납부하며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KRA 설립 및 경마시행 목적 가운데 하나인 축산업발전에 지원되는 축산발전기금 연간 출연 액수가 지난 2003년 2000억 원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 2006년 940억원으로 격감한 데다 농어촌 발전, 복지, 교육 분야 등에 지원되는 경마수익금도 감소되는 추이를 보여 농축산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축산경제 기획특집팀〉

질적 성장·규모화 박차단계서 위기 직면 걱정 태산

사행산업 규제로 경마시장 축소 땐 기반 붕괴할 수도
위기의식 팽배 생산 농가들 대부분 장래 전망 비관적
“혼이 있는 경주마 생산케 정책 지원을” 이구동성

■ 한국미필생산산업 현황과 과제

경주용 말과 승용 말을 생산, 공급하는 국내 양마(養馬)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족, 규제 중심의 한국마사회법 개정 발의가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비롯된 위기는 국내 양마산업계가 피땀 어린 노력으로 달성한 경주마 자급화 기반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과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시점에 직면한 것이어서 심각하다.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와 목장들의 생산기반 확충과 우수한 경주마 생산을 위한 투자계획과 의욕은 경마에 대한 규제와 억제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했고 KRA의 장외발매소 설치 중단 등 경마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냉각됐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육, 양봉산업과 동일한 축산업으로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양마산업은 경마산업은 물론 승마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따라서 양마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경주마산업과 승마산업 기반 붕괴와 직결된다.

양마산업은 자금·노동·기술 집약적인 복합적인 산업으로 특히 경주용 말의 경우 시장에서 무엇보다 경쟁이 우선 시 되는 특수성 때문에 보다 우수한 상품 생산과 공급을 요구 받고 이에 적극 부응해야만 존립과 지속 성장이 가능할 만큼 투자 부담과 리스크가 높은 데다 투자의 회수 기간이 일반 축산업에 비해 길어 애로가 많다.

이 같은 양마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것은 지난 79년이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더러브렛 경주마 생산자가 전무했기 때문에 수입 경주마에 의존한 경마가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아직도 수입 경주마에 의존해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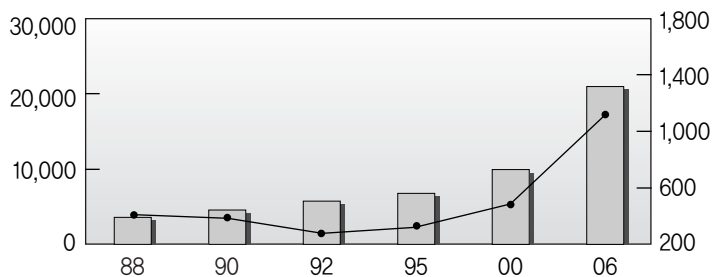
70년대 말부터 경주마 생산의 축산업화가 모색되면서 민간 목장 한 곳이 자발적으로 참여, 생산을 시도했고 KRA가 경주마의 국내 생산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고양시 관내에 현 원당목장을 조성, 경주마 생산 전초기지 용도로 개설하고 가동을 본격화한 게 효시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의 양마산업은 1991년 4월 KRA가 ‘경주마 자급률 확대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 것을 계기로 생산 참여 농가 수가 37호로 늘었고 제주지역의 경주마 생산 전초기지로 조성된 제주경주마목장이 95년에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번식자원 확보가 활기를 띠었다.

당초 국내산 경주마 자급률 75%를 목표로 추진됐던



■ 2006년말 현재 국내 말 사육 현황



사육두수	3,558	4,937	5,474	6,215	10,597	22,941
사육농가수	438	384	316	351	520	1,142



KRA의 중장기 기본계획은 지난 2002년 76%의 자급률을 실현한 가운데 2004년 질적 개량을 위한 경주마 생산 중장기계획으로 수정됐고 이에 따라 전북 장수군에 장수경주마목장 건설이 추진돼 올해 개장됐다.

KRA는 장수경주마목장을 착공하면서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국제경주에 국내산 경주마 출주, 국제경주 선착 달성, 경주마와 번식마의 수출을 골자로 한 국제화와 선진화 목표를 설정, 제시했었다.

올해로 27년여의 역사를 기록케 된 한국양마산업의 역사는 불모지였던 80년대 이전의 수입 의존단계와 90년대의 자급기반 구축단계를 거쳐 현재 질적 성장과 생산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개량 본격화 단계에 들어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한 근거는 KRA가 최근 잇달아 도입한 고가의 씨수말과 생산농가, 규모화를 이룩한 대규모 목장들이 도입한 우수한 씨수말들이 뒷받침 한다.

국내 경주용 말 생산농가들의 마필 개량과 교배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온 KRA가 최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던 불포니(도입가격 40억원)를 비롯해

메니피(도입가격 37억원), 비카(도입가격 21억원), 양키빅터(도입가격 20억원) 등 고가의 씨수말을 잇달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또 씨암말은 올해 미국 캔터키더비 경마 대회에 출주한 경주마의 어미마 ‘퍼스트바이올린’을 비롯해 도입가격이 1억원 안팎인 고가 암말이 씨암말 용도로 도입돼 생산농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경마산업계에서는 물론 미국의 경마산업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개량을 지원하고 있는 KRA와 경주용 말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농가 및 목장들이 보다 우수한 경주용 말을 생산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사례다.

작년 말 현재 국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초지를 확보하고 씨암말을 보유 또는 위탁 받아 더러브렛 경주용 말을 생산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150여 호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내에 101호가 산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도, 경남·북, 충남·북, 전북 등 내륙지역에 50호가 고루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내륙지역에서 경주용 및 승용 말 생산을 검토하고 있는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륙지역의 말 생산 비중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씨암말 보유두수별 농가 분포는 10필 이하가 80호로 가장 많고 11필 이상 20필 미만은 49호, 21필 이상 30필 미만은 12호, 31필 이상이 8호 등으로 농가 호당 평균 씨암말 보유두수는 11.7 필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005년 대비 경주마 생산목장 수와 씨암말 보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내 경주마생산 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씨암말은 지난 2000년 837필에 불과했으나 2001년 1006필, 2002년 1234필, 2003년 1439필, 2004년 1610 필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같은 씨암말 사육두수 증가 추세에 비례해 자마 생산두수도 최근 5년 간 매년 늘어났다.

지난 2000년 659 필에 그쳤던 경주마 생산두수는 2004년엔 1071 필에 달해 공급 포화에 따른 생산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함께 자율적인 경주마수급조절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비등해지기도 했다.

작년 말 현재 등록된 국내 전체 씨수말은 78필로 KRA가 28필, 축산농가를 비롯한 민간 목장이 50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씨암말의 경우에는 총 1740여필이 등록된 가운데 제주도 관내 목장들이 1400여 필, 내륙지역 목장들이 350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씨수말과 씨암말들의 교배로 지난 2006년에 생산된 망아지는 1165필로 2005년의 1094필에 비해 70여필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는 KRA가 최근 도입한 고가의 씨수말들과 민간 목장들이 도입한 씨수말들이 교배에 본격 참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에 경마장에 입사한 국내산 경주마의 평균 거래 가격은 2681만원으로 2005년의 2549만원에 비해 132만 원 가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주마 경매 낙찰 말들의 평균가격은 2372만원으로 전년대비 334만원, 12.4%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자마들의 소득상금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2006년 씨수

말별 순위는 디디미가 1위로 나타났고 다음은 컨셉트윈, 더그룹이즈레드, 크릭켓, 무자지프, 사이코배블, 리비어, 피어슬리, 퓨처퀘스트, 로드오브워 순으로 나타났다.

씨암말의 경우에는 사일런트플래쉬가 1위에 랭크됐고 그레이크레스트, 렛수런, 플라잉우드, 골든이미지, 연지곤지, 청파, 턴투유, 리니어마크, 스니킹아웃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유 씨수말, 씨암말들의 혈통과 질적 수준이 최근 부쩍 향상됐다고 평가한 KRA의 한 관계자는 “경주마 산업은 자금, 노동, 기술 가운데 어느 한 부문이라도 취약하고 허술할 경우 안정화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인데다 수십 년이 소요되는 기간산업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양마산업도 일반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복구에 엄청난 투자와 노력, 시간이 소요 된다”고 강조했다.

양마산업계 저변에서 최근 위기 상황과 관련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주용, 승용 말 생산

기반 구축과 확충의 어려움 때문이다.

현재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양마 및 경마, 승마산업과 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악재가 겹치는 양상인 최근의 한국경마산업 여건과 환경 변화에 생존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제 막 자급률 75%를 달성한 양적인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질적 개량과 성장에 역점을 둔 발전을 추구하고 나선 생산농가들과 목장들의 투자의욕에 영향을 미쳐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농림부가 발표한 ‘경마와 승마의 연계 육성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대책 등에 기대를 걸고 과감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욕적으로 시설투자를 서둘렀던 농가와 목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난감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 경주마 생산 현장에서는 “정부의 경마와 승마의 연계 육성정책, 그리고 제도권내 사행산업 규제정책 중, 어느 정책에 맞춰 대처해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절박해지고 있다.

<축산경제 기획특집팀>

우수 씨암말 확보 · 육성시설 확충 혼신 노력

- 95년 사단법인 설립 공식 출범 - 공동구매 · 공제사업 등 다각 추진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어떤 단체?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지난 79년 국내에서 경주마 생산사업이 개시된 이후 마필 생산 확대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92년에 37 농가가 경주마 생산 농가로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그 해 9월 임의단체로 결성돼 출발했었다.

95년 당시, 농림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제도권 내 축산단체로 공식 출범, 초대 회장에 김병현 대전목장 대표(전 제주축협조합장)가 선임돼 97년 제주육성목장 내에서 국내산마 첫 경매를 실시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80번지에 사무실 및 창고 등 회관을 신축, 기구와 조직체계를 갖추는 등 설립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틀을 다졌다.

제2대 회장에는 99년 11월 현대영 대영목장 대표가 취임, 회원의 권익증진과 국내 경주마 생산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국내산 경주마 이어링세일을 시행하는 한편 대정부, 국회, KRA 등에



▲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회원들이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대한 농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협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현 김순건 회장(건영농축 대표)은 제3대 회장으로 지난 2003년 취임, 국내 경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악화와 특히 정부의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이 규제 중심으로 가시화 하면서 국내 양마, 경마산업계에서 고조되고 있는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회원들의 어려움과 양마산업의 실상 및 당면과제를 알리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경주용, 승용 말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양마농가들의 구심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현재 직원 5명이 우수 씨암말 도입관련 사업 및 공제사업 관련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사업은 회원들의 경주마 생산에 필요한 물자 공동구매를 비롯해 말 경매장 설치 운영, 경주마 생산 육성 및 유통관련 사업, 씨수말 종부사업, 공동육성 조련시설 운영 등이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가 지난 9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실시한 경주마 경매는 26 차례로 국내산 경주마 거래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양마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최근 주변 환경 및 정책 변화로 더해지면서 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돼 준비상이 걸린 상태다.

세계각국의경마

“Sports of Kings, King of Sports”

경마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경마의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17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마필의 경주가 아닌 우수마필의 능력검증을 통한 마필개량수단으로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혈통 스포츠(blood-sports)의 성격은 오늘날에 와서 오락과 유희의 속성이 가미된 대중레저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마는 85년의 역사 속에서 일제 식민지의 통치정책 일환으로 도입되어 지배계층의 향락수단으로써 시행되어 왔으며, 해방 이후에는 폭력배의 승부조작 등으로 얼룩지며 경마의 이미지는 크게 왜곡되어 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한국경마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시설의 현대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괄목할만한 레저수요의 증대를 가져왔다. 또한 90년에는 “국적있는 경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산마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주마 생산의 전환점을 맞았고, 2005년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완공되어 본격적인 재경마마 시대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국경마는 고령층의 한정 및 경마연관산업의 법적제약과 사회적 기반 취약, 경마와 일상생활의 비연계성, 부정적인 경마인식 등의 사회적 문제와 마필생산과 연계된 제도의 취약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비해 선진외국의 경마는 100년을 훨씬 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름의 경마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 ‘더비’, ‘퀸 엘리자베스’ 등의 역사적 인물을 레이스명으로 하여 왕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였고, 영일을 비롯한 귀족들은 모두 마주로서의 명예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할 만큼 선진국에서의 경마는 “Sports of Kings”(왕족의 스포츠), “King of Sports”(스포츠의 황제)라는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홍콩 등 동남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마시행국들은 마필생산과 연계되어 생산자 보호와 우수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경마의 본질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국제경마연맹(IFRA)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는 120여국을 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의 ‘러시아’와 냉전상황으로 불어난 ‘이스라엘’조차도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마는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스포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세계 주요 선진경마국의 현황과 발전배경을 조망함과 동시에, 한국경마의 현 위치를 진단, 우리가 재경마할 할 바를 짚어본다.

◆ 경마시행관리와 마권발매

대부분의 경마국가에서 경마시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안의 감독,관리를 정부가 맡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이나 홍콩 등은 중앙정부 관리부처에서, 미국과 호주는 주(州)정부가 감독하며, 영국의 경우는 정부산하의 영국경마위원회(BHB)가 경마시행의 전반적인 감독과 재정을 관리한다.

그러나 경마를 시행하고, 마권발매를 통한 수익의 주체는 세계 각국마다 차이점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경마시행과 마권발매에 대한 통괄을 모두 KRA(한국마사회)가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나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세부적으로는 중앙경마와 지방경마로 나뉘어져 있지만, 모두 JRA에 의해 통괄되어 지고 있다. 특히 중앙경마에 소속된 10개의 경마장 모두가 JRA의 소유라는 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시행체가 가장 많은 경마장을 소유한 케이스이다. 다만 지방경마의 시행(마권발매)과 관련하여서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맡겨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홍콩은 해피밸리와 샤틀 경마장 2곳을 모두 민간단체인 홍콩자키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마상금 책정, 경주계획 수립, 마주,조교사,기수의 면허 부여를 모두 통괄하고 있다.

아시아 경마국가 가운데에서는 한국, 일본, 인도 만이 정부산하의 독점적인 경마시행기관을 통해 경마를 통괄, 시행하면서 현실에 맞는 경마환경과 풍토를 조성해왔다. 이러한 환경은 비록 자율성이나 시장경제의 원칙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시행과 추진에 있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시행산업 통합관리를 통해 “경마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어 경마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강점을 오히려 약재화 시키고 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영국이나 미국 등은 경마시행과 승마투표(마권발매)관할을 철저히 분리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마시행에 관련해서는, 영국경마위원회와 영국자키클럽이 시행규정의 제,개정이나 경마보안, 재결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최근 들어 영국자키클럽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2006년 4월부터 별도 독립기관인 영국경마관리위원회(HRA)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마권발매와 관련해서 영국경마의 특이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정부 산하의 마권발매공사(Tote)와 각 경마장의 북메이커(Bookmaker)가 마권을 발매한다. 마권발매공사는 한국마사회와 같은 토탈리제이터를 운영하는 내무성 산하의 기관이며, 북메이커는 우리로 치자면 사설마권

발매업자를 뜻한다. 놀라운 것은 마권발매 비율에 있어서 북메이커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90%에 이른다. 그래서 Ladbroke사와 Coral사 등의 북메이커 회사들이 영국경마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州)경마위원회의 경마시행을 통괄하며, 마권발매는 각 경마장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 특히 일부 경마장의 경우는 영리성격의 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 경마장 시설과 장외발매소

우리는 2005년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개장으로 본격적인 지방경마시대를 열었다. 이 땅에 경마가 시행된지 8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3개의 경마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토 면적의 2.3배 크기에 불과한 영국은 무려 60개의 경마장을 설비하고 있다. 경마산업 저변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은 후진국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예다. 물론 홍콩의 경우도 단지 2개의 경마장을 갖고 있지만 홍콩의 국토면적은 우리의 1/100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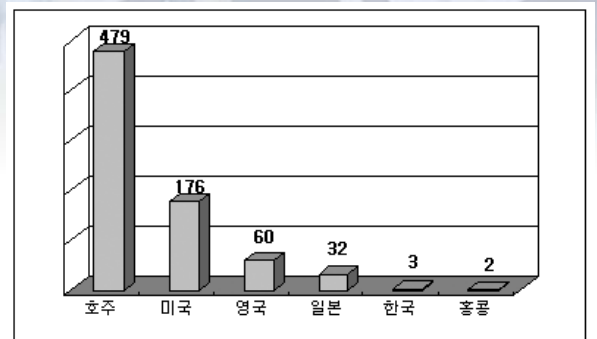
경마장 수에서는 호주가 전 세계적으로 단연 압도적이다. 2004년 국제경마연맹 통계자료에 따르면, 호주가 479개, 미국이 175개, 일본이 32개의 경마장을 가지고 있다.

경주로의 표면은 크게 모래주로와 잔디주로로 나뉘어 지는데, 세계적으로 모래주로의 경마장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주마의 보호와 원활한 경주시행을 위해 폴리주로(인공주로)로 교체하고 있는 흐름이다. 특히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부지역의 경마장에 대해 2008년까지 모두 폴리주로로 교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특이할 사항이다.

장외발매소의 경우 넓은 영토를 가진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역사가 깊은 영국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만큼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전체 매출에서 장외발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상이 경마를 즐기는 홍콩도 130여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지점(30여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매출에서 장외발매의 비율이 70%이상으로, 비슷한 장외발매소를 운

<세계 주요국가의 경마장수 비교>



<세계 주요국가의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

구분	한국	일본	홍콩	미국	영국	호주
운영주체	시행체 직영	시행체 직영	시행체 직영	법인 또는 개인	Bookmaker (사설경마업자)	TAB (장외배팅기구)
운영수	31개	30여개	130여개	수천 개		
규모	대형 (평균 3,100명 수용)	대형	소형 (30-40평배외)	대,소형 혼재		소형
전체 매출 대비 비율	70% 이상	40% 이상 (계좌투표 포함)	40% 이상 (계좌투표 포함)	90% 이상 추정		

영하고 있는 일본(전체매출의 40%)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은 상당하다.

◆ 경마시행종류

흔히 알려져 있는 경마는 더러브렛 경주마가 겨루는 평지경주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평지경주 뿐 아니라 장애물 경주, 속보 경주 등이 병행 시행 되고 있으며, 이들 각종경마의 개최규모나 대중적 인기도는 각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평지경주가 주류를 이루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평지와 비교해 속보경주의 시행수가 크게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그러한 예이고, 덴마크의 경우는 속보경주가 평지경주에 비해 10배나 많은 것은 특이할 사항이다. 같은 유럽이라도 스페인 경우는 속보경주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평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장애물경주와 속보경주는 뿌리 깊게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남미와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속보경주의 전통과 인기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동절기 동안 적설하여 만든 주로에서 말 썰매와 스키를 행하고 있어, 관광객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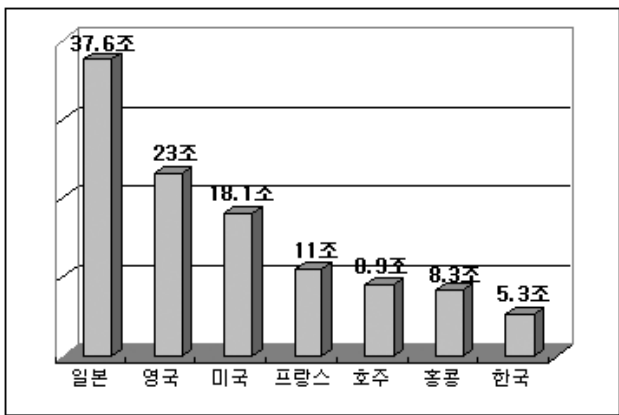
◆ 마권의 매출규모와 운영

우리나라의 연간 마권 매출규모는 세계 7위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을 기점으로 하락곡선을 그려왔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5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원천징수율 18%의 살인적인(?) 세액과 100배가 넘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22%의 추가적인 기타소득세 징수는 경마고객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사설경마의 횡행을 조장하고, 경륜, 스포츠토도 등의 다른 LB경쟁산업과의 경쟁력 약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매출하락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7년 40조원에 달하던 규모는 2004년 33조 6천억원을 기록하며 하락진정세를 맞고 있다. 일본도 1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율이다.

『세계 주요국가의 연매출 현황』(2004년 기준)



원천징수세율을 주(州)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도 소폭증가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양상이다. 이와는 반대로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매출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영국은 2001년 이전 까지 매출의 8%를 원천징수세로 부과해 왔지만, 2001년 원천징수세를 전면폐지 함으로써 2000년까지 9조 8800억원이던 매출액은 2001년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2004년에는 23조 1200억원으로 원천징수세 폐지 이후 무려 235%의 매출 증가를 가져왔다.

싱가폴도 12.7%의 원천징수세율을 2005년 폐지하면서 이전과 비교해 3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는 등 두 나라는 세액개편을 통해 경마 매출의 신장을 가져온 좋은 예이다.

양국은 원천징수세 폐지에 따른 세제보존을 위해 영국의 경우 배팅사업자, 즉 북메이커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북메이커(사설경마업자)의 마권발매율이 크게 높다는 특수성이 종전과 비교해 징수세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싱가폴은 시행자로 하여금 일정범위 내에서 환급률을 자율 결정하고 있어 경마고객의 부담을 크게 덜어줌과 동시에 수년 내에 종전 세액수준의 보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다.

이에 영향으로 홍콩 역시 2006년 하반기부터 13.4%에 달하던 원천징수세를 폐지하였다.

정부재정 지원 한계와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로 축산발전기금 조성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마사회 출연금이 계속 감소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영국이나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 마권의 종류

마권의 종류는 나라마다 양식이 다르다. 단승,연승은 각국이 공통이고, 복승식도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똑같이 실시하고 있다.

〈원천징수세 폐지 국가의 사례 비교〉

구분	영국	싱가포르	홍콩
폐지전 세율	원천징수세율 8%	원천징수세율 12.7%	원천징수세율 13.4%
폐지 연도	2001년 폐지	2005년 폐지	2006년 하반기 폐지
폐지후 매출변화	235% 증가 (2000년 대비)	30% 증가 (2004년 대비)	
폐지에 따른 세제보존 정책	배팅사업 이익의 15%를 Bookmaker에 과세	▲ 1년간 정부세수액 보장 ▲ 승식별 환급율을 시행체가 자율결정	▲ 이익세 부과 ▲ 향후 5년간 정부세수액 보장

가까운 일본의 경우 모두 8종의 승식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승,연승,복승,복연승,쌍승식을 포함해 “삼복승식”(1,2,3위를 순서에 상관없이 적중하는 방식)과 “삼쌍승식”(1,2,3위를 순서대로 적중하는 방식) 그리고 “퓨음번호 복승식”이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는 높은 배당의 마권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테면, “픽-식스(Pick-Six)”라고 지정된 6개경주의 1위를 연속 적중해야 하는 방식과, “사쌍승식”(1,2,3,4위를 순서대로 적중하는 방식) 등이다.



우리나라는 5종의 승식을 운영하고 있어 선진경마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물론 승식이 다양하다고 해서 반드시 매출에 증가를 가져올 수는 없다.

그러나 고객의 니즈(needs)가 다양화, 고급화 됨에 따라 다른 LB산업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배팅상품의 다양성을 갖춘다거나 외국과 같이 평지경주 뿐 아니라 장애물경주 등의 경주종류를 확대하는 것은 분명 시장의 흥행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다.

◆ 경주마 생산과 국제경주

마필 생산은 경마의 양 수레바퀴의 하나로서, 우수한 마필개량증식에 목표를 두지 않는 경마는 경마문화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Betting 위주로 발전되어 다른 사행산업과의 차이점을 상실하게 된다.

올해 초 일본이 파트I 국가로 승격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경주마 생산과 육성에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거 JRA의 한 관계자는 “마필생산이 없는 경마는 주사위 던지기 노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 것처럼 경마가 단순한 게임 자체에 머물지 않고 산업화 되기 위해서는 우수 경주마의 생산은 필연적인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일본은 매출대비 경주마 생산자에 대한 지원금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일본경마의 “쌍크탱크”라고 일컬어지는 ‘경주마종합연구소’와 세계최대 규모의 육성목장 ‘미호(米浦)트레이닝센터’가 탄생하였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경주마들은 세계수준에 확실히 뒤처지는 모습이었지만 ‘선데이 사일런스’, ‘탐타라’, ‘포티나이너’와 같은 가능성 있는 씨수말들을 막대한 금액을 들여

도입함으로써 자국산 경주마의 질을 현저히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2005년 삼관마로서 올해부터 교배에 돌입한 ‘딥 임팩트’(Deep Impact)라는 경주마는 추정치이지만 몸값이 무려 1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전통의 호주 멜버른 컵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델타부르스’와 ‘팍록’이라는 경주마 역시 각국에서 군침을 흘리는 명경주마들이다.

그리고 90년대 초반부터 미래의 가능성을 엿보고 재팬컵과 같은 상금이 많은 국제경주를 개최하는 등 이러한 배경들이 결국 일본을 세계최고 경마국가중 하나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된 것이다.

근대경마의 발상지 영국을 비롯한 아일랜드도 그 어느 나라 보다 우수경주마 생산이라는 경마의 본질을 잘 이어가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나란히 연간 생산두수 1만여두를 약간 넘는 정도이지만 양국 모두는 유럽 전체 경주마의 수준을 좌우할 만큼 양질의 경주마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아일랜드는 그 나라의 전체 수출수지 가운데 경주마의 수출이 10% 규모를 웃돌고 있다.

미국의 경마산업도 과거에는 경마권을 위한 마권발매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70년대 들어 ‘노던댄서’라는 희대의 명스탈리언을 탄생시키며, 현재 세계 최고의 경주마 생산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또한 국제경주 개최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으로 “브리더즈컵 챔피언십 시리즈”를 개최하여 신흥 경주마중흥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두바이월드컵”과 함께 세계 2대 국제경주로 평가되는 “브리더즈컵 시리즈”는 총상금 2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지금까지 세계 선진경마국가의 대내외 환경을 통해 우리 경마의 현실을 조명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마의 선진화를 위해 절실한 면에서의 발전에서 무엇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가, 우리 경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파트III 국가 진입 등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 왔지만 마사회라는 독점적인 사업성격으로 인해 “사행산업통합규제”, “LB경쟁산업의 성장” 등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한국경마의 발전을 위한 대변혁을 추구해야 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다른 사행산업과는 달리 경마는 국가경제 기여 뿐 아니라 제반 지원분야의 고용 등을 파생시켜 하나의 산업구조로 연결되어 왔다. 이러한 대명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실천해야 할 모든 과제를 포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조직적인 실천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마인 모두에게 잠재된 의욕과 열정을 일깨울 필요성이 절실한 때다.



‘한국산 경주마 국제경마대회 선착!’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요?

한국의 양마인과 경마인들이 생산한 경주마가 국제경마대회 우승컵을 차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요?

축산전문 언론으로 한우산업을 비롯해 낙농육우, 양돈, 양계, 양육, 양봉, 양토산업 등 축산업계 전반을 대변해 온 축산경제는 정부와 양마산업 및 경마산업계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 봅니다.

한국양마산업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우리나라 경주마의 75% 이상을 국내산 말로 대체하는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 국제경마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하는 경주마를 탄생시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은 축산경제신문은 환경 친화적 축산업인 동시에 고부가가치산업인 양마산업을 우리 농촌과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경주용 및 승용 말 생산 현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전국 양마농가, 양마인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아내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해나갈 것입니다.



경마를 “돈”으로 환산하면?

- 경마의 산업적 가치에 대하여 -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인 ‘경마’가 우리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이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지인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경마는 무엇이며, 왜하느냐”하는 것이다. 간단하게는 한국마사회법 제조에 나와 있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이라고 되어있으나 법 조항처럼 답변되지만 첫 단어인 경마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마사 진흥과 축산 발전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이 모두가 경마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어느 자리에 위치시키느냐 하는 데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글 이경주 KRA마사전략팀〉

■ ■ 경마는 어디에 속하나?

경마는 산업 분류상에서 어디에 속할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경마’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18종류가 나온다. 이렇듯 경마는 어느 특정한 한 분야로 이뤄져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자신이 설명하기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경마를 보게 된다. 말을 중심으로 한 분야, 경주를 하기 위한 주로 및 관람대 등 제반 인프라, 베팅 행동과 그 행동을 하기 위한 발매기 등 제반 시설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 분류는 산업 구조에 따라서 1~4차로 구분하는 클라크식 분류법을 사용하는데, 경마산업은 놀랍게도 1차에서 4차까지 모두 속한다.

경주말을 생산하고 사육하며,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일은 1차 산업인 농·축산업에 해당한다. 특히 말은 여타 가축에 비해 넓은 방목 초지가 필수적이며 목건초와 같은 조사료를 꼭 먹어야 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마가 발전한 나라는 대부분 넓은 초지가 있으며 농·축산업이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는 1천여 곳의 말 사육 농가가 2만 마리 가량의 말을 키우고 있다.

2차 산업으로는 경주로와 관람시설, 목장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경주마 조교용 시설과 기계장치, 마구 등을 제조하는 건설·제조업이 해당되며 여기에 경주마로 양성하는 조련도 포함될 수 있다.

서비스업을 말하는 3차 산업에는 경마공원에서 경주중계·관람·마권발매·식료판매 등의 제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말 진료, 경주마 유통·운송·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21세기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식정보산업을 일컫는 4차 산업에는 경마 시행, 마권 발매, 말 혈통 관련 정보의 창출 및 유통, 인터넷 기반 발매시스템 등이 해당한다. 최근 오픈한 KNetz 시스템은 대표적인 4차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경마산업은 1차부터 4차까지 다양한 산업적 역할이 혼합된 ‘복합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친 경마산업은 파급 효과가 크다.

산 등의 의료업이 있다. 이들 산업에서 생산자, 육성업자, 마필관리사, 수의사, 장제사, 각종 판매·운송업자 등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말 생산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으로는 경주마 경매 등 유통업을 비롯해 보험업, 마필 운송업, 목장시설 관련 설비업·토목업·건축업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말 생산에서 파생된 산업도 승마를 비롯한 말 트레이닝과 같은 관광레저산업, 마필 대여업, 식육산업, 동물매개 치료업(재활 및 치료승마) 등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선진국에서는 승마가 고급 스포츠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생활승마 동호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구 분		내 용
직접관련 산업	업 종	경주마 생산업, 육성업, 장식제업, 사료업, 농기계·비료·마구 등 기구·장비·물품 등의 생산업, 수의진료 및 가축약품 생산 등 의료업 등
	고용창출	생산자, 육성업자, 마필관리사, 수의사, 장제사, 각종 판매·운송업자 등
간접관련산업		경매 등 유통업, 보험업, 마필 운송업, 목장시설 관련 설비업 및 토목·건축업 등
기타 파생산업		승마업, 말 트레이닝 등 관광레저산업, 마필 대여업, 식육산업, 동물매개 치료업(재활 및 치료승마 등) 등

< 경마의 산업 분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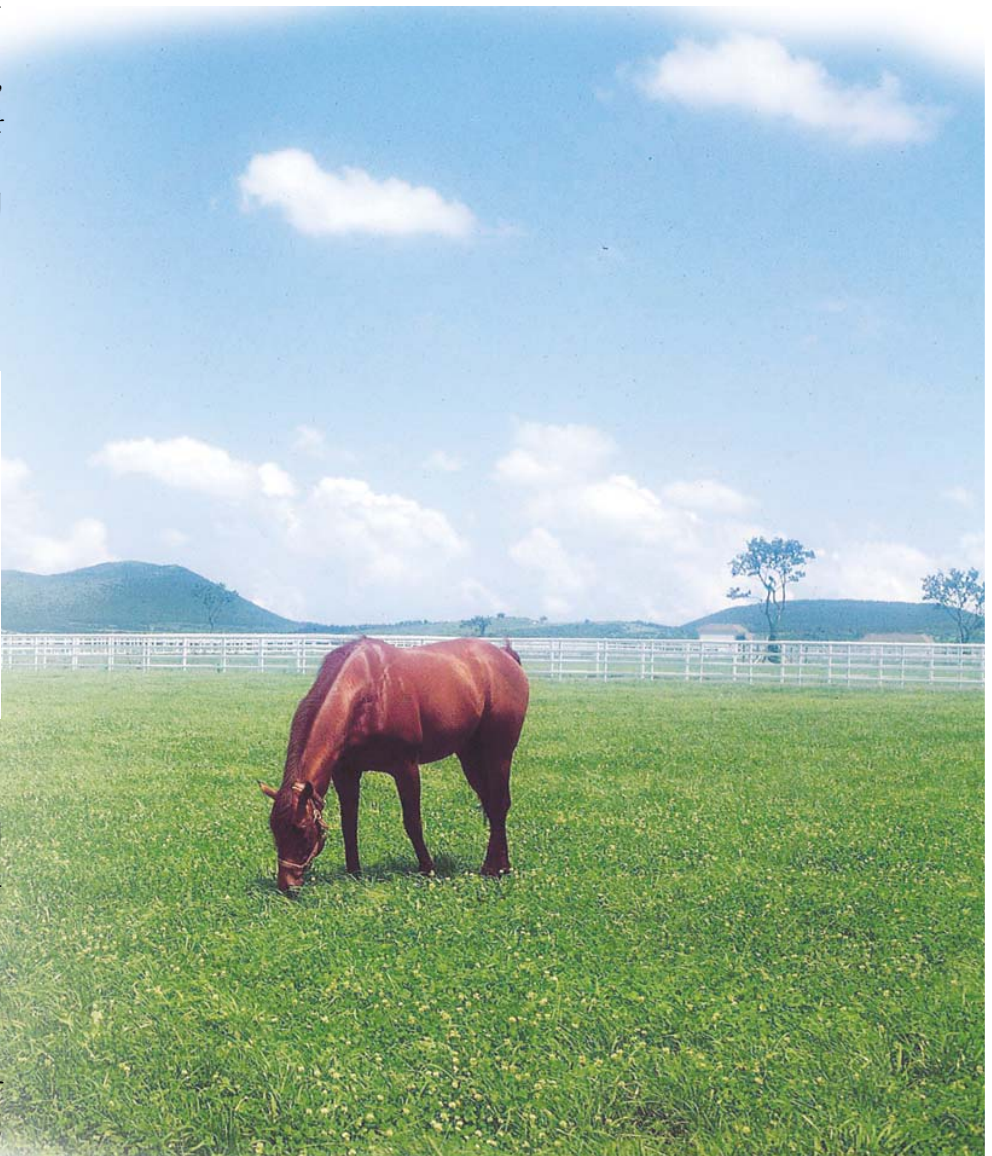
분 류	주요 내용	비 고
1차 산업	말 생산 및 사육, 사료작물 재배 등	농·축산업
2차 산업	대규모 경주 및 관람시설 설치, 각종 조련용 기계장치 및 마구 제조, 말 조련 등	건설·제조업
3차 산업	경주 중계, 관람, 마권 발매, 말 진료·유통·운송·보험 등	서비스업
4차 산업	경마 시행·발매 관련 정보의 창출 및 유통, 인터넷 기반 발매 등	지식정보산업

■ ■ 말의 산업적 가치는?

이처럼 다양한 산업적 역할이 망라된 경마산업에서 근간을 이루는 말 생산 산업의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로또,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토도 등 여타 LB산업과는 차별되는 ‘복합레저산업’으로서의 경마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말 생산 산업이 농가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말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은 경주마 생산업, 육성업, 장식제업, 사료업, 농기계·비료·마구 등 기구·장비·물품 등 생산업을 비롯해 수의진료 및 가축약품 생





이와 같은 말 생산 관련 산업을 포함한 마필산업의 산업유발 효과는 연간 6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0.75%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호주와 아일랜드는 GDP 대비 마필산업 기여도가 3%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은 1%대 수준으로 마필산업의 산업유발 효과가 영화산업 규모와 대등하다.

< 마필산업의 산업유발효과 (2005년 기준) >

※ 출처: 농림부 경마혁신대책(2007년 3월)

구분	경마	마필생산	육성, 조교	사료 등 연계산업	승마	계
산업유발효과	59321억원	329억원	490억원	175억원	365억원	6068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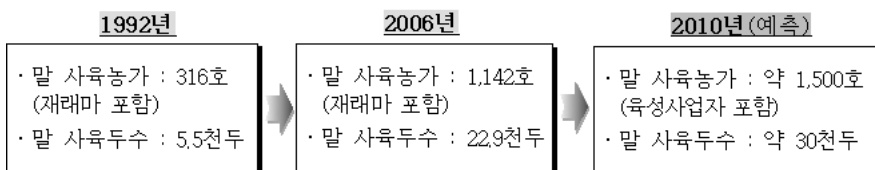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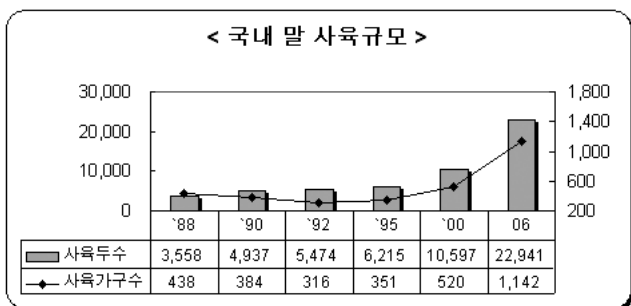
두 번째는 말 생산 산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신무역질서 환경에서 일반 농업의 효과적인 대체산업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농업의 경우 매년 농가수가 1~3% 감소되는 반면에 말 사육 농가 수는 10~14%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레저 부문 수요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기타가축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국내 말 사육농가는 1142가구이고 사육 수는 2만2941마리다.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대체산업으로 매우 유용한 말 생산 산업은 농지가 말 생산 용 초지로의 전환이 적합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게 농지로의 재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말 생산 산업은 기타 가축에 비해 단위면적당 사육 마릿수가 가장 적고 오염물질 배출도 가장 적은 친환경 산업이며, 농촌의 관광지화에 효과적인 경관 농업으로서 미래형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 말사육규모의 변화 >



세 번째는 국내 말 생산으로 국제무역수지에 있어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경주마의 75%는 국내에서 생산된 경주마이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부터 전량 들여올 수밖에 없다. 국내 경

주마 생산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는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약 648억원이었으며, 오는 2010년에는 국내 경주마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국내 경마산업이 발전하면서 연간 약 600억원대의 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더불어 승용마로 활용되는 국내산 경주마의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말 생산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수한 경주마 생산을 통해 경마와 승마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가 확대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마 생산 시 해외 경주에 출주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 나아가 경주마와 번식마의 수출과 씨수말 교배사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실제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경우 2005년 연도대표마 '입입팩트'라는 유명한 말이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06년에는 해외 원정에서 일본말들이 두바이월드컵 시리즈 2승과 호주 멜버른컵 우승을 차지하는 등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 결과 올해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마국가 분류인 「Part I 국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3월에 수립된 농림부 경마혁신대책의 'VISION 2016 국제 경마대회 우승'이라는 목표가 달성된다면 10년 후에는 미래 산업으로서의 경마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 경마가 축산업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마지막으로 경마시행을 통해 국내 축산업 발전을 리드해온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경마수익금의 60%는 특별적립금으로 적립되고 이 중 80%가 매년 축산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2001~2005년 5년간 적립된 축산발전기금은 무려 5977억원으로 같은 기간 축산발전기금의 자체운용수익을 제외한 신규 조성금액의 9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각계 각소에 쓰이고 있어 축산업의 꺾줄과도 같은 축산발전기금의 실제 생명줄은 경마수익금이다. 경마가 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말 생산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경마는 1차에서 4차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산업으로서 마사 진흥과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리드하면서 80년 이상을 지속해 왔다. 경마는 로또, 카지노, 스포츠토트, 경륜, 경정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복합레저산업이자 미래산업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육성되고 발전시켜야 한다.

<출처: KRA 한국마사회 9월호 굵소리 "경마특집">

보다 우수한 경주마 생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악목장이 배출한 06 그랑프리(GI) 우승마 '플라잉켓'

저희 금악목장은 역동적인 경마문화의 가치 창출과 양질의 경주마 생산 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악목장은 한국 최대의 초지와 서구형 목장 기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서 유일하게 서울 경마장과 흡사한 1,400미터 훈련주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워킹머신, 수영조교장, 원형마장 등 마필의 생산은 물론, 육성과정에서부터 경마장에 투입하여 곧바로 실전에 적응 할 수 있게끔 순치조교에서 보법조교까지 마치게 되는 최첨단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필생산 문화나 양질의 경주마 생산을 위하여 자체 씨수말을 도입하는 등 혈통관리, 제반 마필자원 보호 육성에도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악목장 임직원은 금악목장이 선도해 나가는 한국의 경주마 생산목장 문화가 곧 하나, 하나 선례가 되고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초지 : 89만1000m²

*패독 : 3960m²

20만평의 끝없이 펼쳐진 초지는 미국 켄터키산 초지로 분포되어 있어 경주마들의 발육이나 능력 배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드넓은 초지는 마필들에게 그만큼 질주본능을 배가시켜 주기도 한다.



*훈련주로 : 1,400M × 10m

서울경마장과 똑같은 1,400m 주로를 확보하고 육성마의 순치조교에서 주로조교까지 모두 마친 후 상장되거나 개별거래 되어 경마장으로 입사 되기에 사양관리자나 기수, 조교자들로부터 호응이 대단하다.



*실내 원형마장 : 직경25m 1개소

이곳에서 육성마들이 순치조교, 안장조교 속보조교 등을 받게 된다.



*마사 : 5개동(180칸)

쾌적하면서도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각별히 설계된 마사들이다. 각 마방들은 넓고 쾌적하여 마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배려한 흔적이 많다.



金岳牧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8번지

TEL : 064)796-2114 FAX : 064)796-0947

일요일 레/이/스 승식별 추천마

단(쌍)승식 기대마

1경주 ③순애보 현군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거리 적응력과 경험을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직전 경주 종반 진로가 막히는 불운을 겪으며 입상에 실패했으나 이번 경주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 기대.

7경주 ①왕빛나 공백 이후 빠른 적응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필이다. 직전 경주 다소 빠른 경주 흐름속에서도 종반 경쟁력 있는 탄력을 발휘해 가능성을 높였고, 이번 경주 게이트의 이점과 상대 약해 우승 기대 마로 추천.

8경주 ③동반의강자 능검시 신에마 답지 않은 잠재력을 보여주며 기대치를 높였으나 직전 초반 늦발 이후 종반 남은 걸음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경주는 줄어든 거리로 인해 한결 순쉬운 능력 발휘가 기대되고 상대 또한 약해 추천.

11경주 ⑤백광 이미 능력면에서는 현 국산마 최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번 경주 공백기에 따른 실전 감각이 관건으로 보이나 약한 상대들로 인해 우승을 기대해 본다.

심호근 기자
전화정보 060-601-5999
SMS 060-604-0115

복승식 축마 (2위이내)

1경주 ③순애보 순발력이 좋은 마필로 직전경주 선행에 실패하며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다. 이번경주 신예기수 기승했으나 부중종교 훈련종아 베틱축으로 추천한다.

2경주 ⑫대장군 출전주기가 늦어졌으나 이번경주에 대비해 상위권 마필과 병합훈련으로 강무장했다. 출발지 불리하나 능력상 입상도전 충분하다.

4경주 ⑨해미르 직전경주 외곽주행후 여력이 남았던 마필이다. 이번경주 적임기수 기승했고 강한 상대없어 입상을 넘어 우승까지 노릴 수 있다.

8경주 ③동반의강자 순발력이 부족한 마필이나, 이번경주 상위권 마필과 병합훈련으로 강무장했고 기승기수 강단있어 입상 유력마로 추천한다.

이영오 전문위원
전화정보 060-601-9991
SMS 060-604-0113

(복)연승식 기대마 (3위이내)

1경주 ②시티서블 직전경주 최후미에서 경주 전개하고 여력이 남은 상태에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마필이다. 선추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경주전개와 관계없이 마필 능력 믿고 들어간다.

6경주 ⑫장인 지구력 부족의 단점은 있지만 순발력과 스피드가 우수한 마필로서 느린경주 약한 편성에 출전해 선두권 주도하고 버틸 가능성 높게 본다.

7경주 ①왕빛나 마체 당당하고 빠르게 힘차고 있는 마필로서 직전경주 최선 승부 피했고 여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경주 강공이 예상되며 능력상 선전을 기대해 본다.

10경주 ④서해번쩍 기본능력 우수한 마필로서 공백 후 강한 편성에서 계속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상대마필들 능력 만만치 않지만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박사 전문위원
전화정보 060-601-9994

일요일 레/이/스 테마별 추천코너

꼭 놓치면 안 될 주로 X파일

1경주 ②시티서블
직전 8/4일 과천의 주로상태는 제법 가벼웠던 주로에 속함. 따라서 이날 종반 환상적인 추입탄력 보이며 기록했던 1.15.0 의 호기록도 다소 거품이 내재된 것은 사실. 하지만 이번경주 선행싸움 불가피해 경주전개상 충분히 역습한발 기대해 볼 수있고 의지만 있다면 직전보다 더 나은 모습도 연출가능.

10경주 ⑩당대제왕
직전 7/7일 과천의 주로상태는 조금 가벼웠던 주로에 속함. 따라서 이날 이마필 진정한 능력 드러내며 기록했던 1.56.9 의 호기록도 다소 거품이 내재된것은 사실. 하지만 이미 몇개월전 부터 힘이 딱 차올랐던 마필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더 큰 세상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도깨비성 능력마필.

강건욱 전문위원
SMS 060-604-0304

노려볼 단통경주

< 4경주 >
추천마권
복승 ⑧비승비술 - ⑨해미르
예상배당 5배 이내

최저 배당이 예상되는 경주다.
출전마간 능력차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⑧비승비술과 ⑨해미르의 동반입상이 유력시 된다.
선행 찬스를 만난 ⑧비승비술은 전개 상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 최근 뒷심도 많이 보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믿고 공략한다. ⑨해미르는 드러난 전력상 가장 안정감을 주는 마필로 이번경주 앞둔 훈련에서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입상권 진입이 확실시 된다.
상대마인 ⑩애머랜사인은 “골막염”과 “요배통” 등의 질병사항이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잠재력 있는 ⑤플라잉걸 역시 훈련강도가 약해 보인다.

서석훈 편집부장
전화정보 060-601-3999
SMS 060-604-0099

노려볼 이변경주

< 9경주 >
경주분석 전력 거듭할수록 발걸음늘고 있는 국산4군 중상위권 마필들간의 접전경주로 어떤 마필이 입상하여도 할말없는 대혼전구도의 레이스로 순발력,지구력 모두 갖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박빙의 경주로 재미있는 레이스.

오늘의추천마 ①활력미인
최근에는 순위권에도 들지못하고있는 부진마이나 신마시절에는 선행으로 입상후 선입전개로도 입상을 하였던 준족으로 이번경주에서도 만만치않은 상대들을 만났으나 기본 발걸음은 가지고있는 발전가능성있는 마필로 기습선행이나 차분한 선입전개면 입상 가능한 이변가능마 필.

추천마번 ①활력미인-③스피넬, ⑤나이스챔프, ④마르스

서승국 전문위원
전화정보 060-601-9922
SMS 060-604-0305

일요일 레/이스 컨디션으로 본 추천마

	1R	2R	3R	4R	5R	6R	7R	8R	9R	10R	11R	12R
직전대비 상승마	④갈색무적	⑩총선	⑧요술공주	⑨해미르	①익셉셔널멜리트	③플라리스	①왕빛나	③동반의강자	-	⑥홍지	-	③대청마루
직전대비 저조마	⑦울프칸	⑩무비전설	-	-	⑨알리다더러	⑨유동	-	④비하인드더신즈	⑥카운터펀치	-	-	②세기의여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유준상 전문위원</p> <p>전화정보 060-601-9993</p> <p>SMS 060-604-0119</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김대유 기자</p> <p>전화정보 060-601-6999</p> <p>SMS 060-604-0114</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30%;"> <p>서석훈 편집부장</p> <p>전화정보 060-601-3999</p> <p>SMS 060-604-0099</p> </div> </div>												
레이스전개유리마	②시티서블	⑦애플루트파워	②삼다한라	⑧비승비술	①익셉셔널멜리트	⑨유동	①왕빛나	⑧그레이워드	⑤나이스챔프	⑥홍지	⑥무비한	⑤천하명장
혈통우수마	②시티서블	⑩총선	⑧요술공주	⑧비승비술	⑦포토맵	⑩트윈빅토리	⑥아워퀸	⑤파이어나어즈	③스피넬	④서해번쩍	⑤백광	④번개의선물

일요일 레/이스 고배당 승부코너

꼭 승부할 중고 배당마

3경주 ①뛰고뛰고 출전마중 순발력 가장 좋은 마필로 능검시 능력마들과의 경합으로 막판 걸음 무너졌지만 끈기와 근성있는 모습으로 가능성 보였고 오랜기간 공돌이며 지구력 보강해 강자없는 편성속에 게이트 이점 안고 꼭 선행 승부할 마필.

5경주 ②샘발릭 마필간 전력차 크지 않은 추마부재 혼전중에 직전 강자름에서 초중반 무리한 전개로 걸음 무너졌지만 최근 뚜렷한 변화 보이고 있는 능력 마필로 흐름 빠르지 않아 게이트와 부중 이점 안고 꼭 승부할 마필.

8경주 ④비하인드더신즈 마필간 전력차 드러난 인기마 접전중에 능력에 비해 더디게 걸음 늘고 있지만 직전 의지 부족함에도 탄력있는 걸음 변화 보인 마필로 강훈련 소화하며 의지 보여 상대 강하지만 상승세 이어가기 위해 꼭 승부할 마필.

정완고
전문위원
전화정보 060-601-7999
SMS 060-604-0191

훈련으로 본 위험한 인기마

1경주 ⑦울프칸 직전경주 좋은 순발력 보이며 선두권에서 레이스 전개하였으나 막판 의외로 뒷심 부족을 보인 마필로 금주 연일 강한 조교를 시행하면서 의지있는 훈련을 시행하지만 직전대비 상대나 걸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불안함

2경주 ⑩무비전설 데뷔전에서 선두권에서 근성보인 마필로 직전대비 훈련강도 대폭 올리면서 병합훈련까지 시행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주행 자세가 좋지 못한 모습이라 직전이상의 걸음은 기대하기 힘든 마필

5경주 ⑨알리다더러 직전경주 상태 좋았던 마필로 금주 조교시 여전히 좋은 탄력을 보인 마필이지만 동조 마필 ④양키챔프와 병합시 밀리는 걸음을 보여 기수기용에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상태 좋은 마필들이 많아 고전이 예상됨

유준상
전문위원
전화정보 060-601-9993
SMS 060-604-0119

馬力예상

과거 경주에서 보여준 마필의 기록과 최근 마필능력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산출한 예상

경주	순애보	시티서블	스마트챔프	블랙러시	울프칸
1경주	3	2	1	5	7
2경주	대장군	총선	애플루트파	두남재	해피엔젤
	12	11	7	1	6
3경주	삼다한라	알포스	핫스팟	뛰고뛰고	요술공주
	2	4	6	1	8
4경주	해미르	비승비술	플라잉걸	무시무중	째즈나라
	9	8	5	6	1
5경주	익셉셔널멜리트	알리다더러	포토맵	샘발릭	탐플러스
	1	9	7	2	10
6경주	하트라인	유동	윤길산	플라리스	클로리원더
	8	9	6	3	10
7경주	에워니아	신경향	운장산	상쾌하아침	떠오르는별
	5	3	7	4	2
8경주	동반의강자	상향돌파	탐리더	스페셜윈	파이어나어
	3	9	7	6	5
9경주	카운터펀치	라이너	마르스	스피넬	나이스챔프
	6	9	4	3	5
10경주	홍지	서해번쩍	강권	킹데이	럭키스마일
	6	4	2	3	7
11경주	백광	무비한	하이웨이스	시원한질주	마티챔피
	5	6	3	1	7
12경주	대청마루	시원하게	천하명장	번개의선물	세기의여걸
	3	6	5	4	2

“아직도 돈주고 종합지를 구입하십니까?”

불법 종합지 근절위해 21개 회원사
전문지협 종합지 무료제공

본장 및 전국 장외발매소에서는 한국경마전문지협회 회원사 전문지를 구입하신 독자여러분께 한국마사회가 공식승인한 전문지협회 종합지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편의점 및 일부 신문가판대 제외)

예상 마번 및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예상 마번의 바뀌치기 등을 자행 하는 불법종합지로 인해 경마팬들의 피해가 만연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팬들로 하여금 경마를 "단순한 마번짜기"로 유도하고 있음은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경마전문지협회는 불법 종합지를 근절함으로써 독자여러분께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종합지를 구입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종합지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종합지의 폐해를 막기위해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소송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불법 종합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경마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경마전문지협회 회원사 일동



KRA 한국마사회 공지

2007. 8월

경마전문지 품질 평가 서비스 결과

07. 8월 경마전문지 품질평가 서비스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마전문지 품질조사 설문에 참여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보의 질과 양’ 품질조사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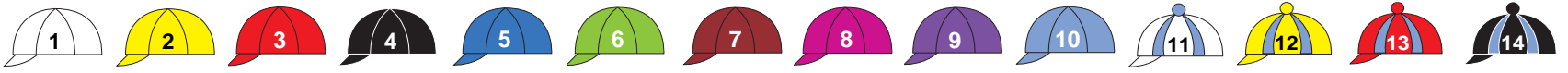
- 설문조사기간: '07.8.11~8.26 (16일간)
- 설문응답인원: 총 937명
- 설문결과

순위	전문지명	순위	전문지명
1	경마문화신문	4	검빛경마
2	서울경마	5	경마필
3	경마명승부		이하 생략

적중률 순위 산출 결과

- 조사기간: '07.8.11~8.26 (총 56R)
- 조사대상: 총 18개 발행사
- 순위 산출결과

순위	1등 단승적중률	순위	3등중 복승적중률	순위	5등중 복승적중률
1	서울경마	1	경마문화신문	1	신마뉴스
	스포츠경마		경마필		경마필
	경마문화신문		경마명승부		서울경마
3	경마병법	3	뉴월드경마	4	경마문화신문
	경마연구소		히트경마		히트경마
기타 우수한 업체 (가나다순)					
	검빛경마		과천경마		경마뉴스
	마사일호		한국레저경마		신세대경마
			에이원경마		
			경마뱅크		



대한민국 최고의 ★ 일요 예상 종합 ★ 경마전문가 총집결

《 범 례 》
 ★★★★★ 대혼전 ★★★★★ 혼전 ★★★ 보통 ★★ 우열 ★ 압축

전문위원	정완교 060-601-7999 SMS 060-604-0191	이영오 060-601-9991 SMS 060-604-0113	김대유 060-601-6999 SMS 060-604-0114	강건옥 SMS 060-604-0304 마필의 관계가리, 마필의 승부의지를 알려드립니다.	서석훈 060-601-3999 SMS 060-604-0099	심호근 060-601-5999 SMS 060-604-0115	이박사 060-601-9994 경마계의 검증된 펀드매거저	서승국 060-601-9922 SMS 060-604-0305	유준상 060-601-9993 SMS 060-604-0119	혼전도
경주										
서울1 경주 11:25 국5 1200M 마형	2 4 5 6 3	4 3 2 5 1	2 5 6 4 1	4 3 2 1 1	2 4 7 5 3	3 7 4 1 2	2 4 7 1 3	1 2 5 7 3	4 2 3 5 6	★★★
서울2 경주 11:50 국6 1000M 마형	12 1 11 10 7	12 11 1 7 10	11 7 12 10 1	11 12 10 7 1	12 10 11 1 7	11 12 7 10 8	7 11 12 1 10	11 12 10 6 8	11 12 9 7 7	★★★
서울3 경주 12:50 국6 1000M 마형	2 4 6 1 12	6 2 4 12 11	2 4 5 1 8	1 6 2 7 5	4 2 6 12 8	5 8 7 4 2	2 12 4 7 1	2 4 3 5 9	8 2 6 1 4	★★★★
서울4 경주 13:50 국6 1200M 마형	9 12 8 6 11	9 5 12 8 6	9 8 5 6 12	9 8 12 6 1	9 12 8 5 6	8 12 9 5 6	8 9 9 3 5	9 2 8 1 6	9 7 8 6 12	★★★
서울5 경주 14:20 외5 1200M 마형	2 1 7 9 10	9 1 7 8 10	7 8 1 10 9	9 1 8 10 1	2 9 10 1 8	8 1 11 2 7	1 2 3 9 8	8 9 10 2 7	1 7 4 10 8	★★★★
서울6 경주 14:50 국6 1400M 마형	8 3 11 9 12	8 3 10 4 11	9 12 3 8 4	3 9 8 4 10	8 3 10 7 11	8 12 9 3 11	12 4 3 9 8	8 12 4 10 9	3 4 4 5 12	★★★★
서울7 경주 15:20 국5 1400M 마형	4 1 2 8 5	1 4 8 2 5	4 1 5 3 8	4 5 6 7 8	2 1 4 5 8	1 4 5 2 8	1 4 5 6 8	8 5 5 3 4	1 2 4 2 8	★★★
서울8 경주 15:50 외5 1700M 마형	3 4 6 7 8	3 7 6 8 5	3 6 7 8 2	6 3 8 4 7	3 2 6 6 7	3 5 7 4 3	6 7 8 2 7	3 5 6 2 7	3 5 9 6 7	★★★★
서울9 경주 16:20 국4 1700M 별정III-B	5 3 9 4 7	7 2 3 5 9	5 3 7 4 9	7 5 3 9 10	7 6 9 2 3	9 1 5 7 3	3 4 5 6 7	1 5 3 7 4	5 9 3 4 7	★★★
서울10 경주 16:50 국2 1400M 별정III-B	7 2 10 6 4	6 2 7 8 3	6 3 4 2 7	8 10 6 4 2	6 9 3 4 1	6 8 6 4 10	4 6 8 2 2	4 6 3 7 7	6 2 4 8 7	★★★★
서울11 경주 17:30 국1 2000M 핸디캡	1 5 8 9 6	5 8 6 1 9	5 6 8 9 1	5 8 8 6 4	5 1 9 2 4	5 9 8 6 1	5 4 6 9 2	5 1 6 9 10	5 6 6 8 4	★★★★
서울12 경주 18:00 국3 1900M 핸디캡	1 3 6 4 2	3 1 6 5 2	7 5 3 1 2	5 1 7 2 6	1 3 2 3 4	5 1 2 3 4	1 3 2 5 1	3 2 7 5 4	3 5 1 4 7	★★★





경마문화

가 함께하는

K-Netz 모바일 베팅



Airmedia

KRA 경마 전용 단말기

- 서울, 제주, 부산 경마장 마권구매
- 실시간 배당률, 마체중, 경주결과 확인
- 가입비, 기기값 면제(단말기 무료제공)
- 저렴한 통신료(월2만원, V.A.T별도)

지금 직접 사용해 보세요!!

네손에 경마장이 있다!

단말기
무료



하필 주말만 되면 경·조사가 있을까?
가족·애인과 여행 약속이라도 있게되면...

이 모든 걱정을 말끔히!!

어디서나 실시간 배당률에서
마감전까지 마권 구매가 가능한 모바일 베팅을 즐기자!

가입문의 상담 02-502-5213

(KRA 모바일센터)